



Hello! My name since I received the habit in 1963 has been Sister Judith Marie McKenna. Over 77 years ago there was a little battle between Monsignor Campbell at St. Lawrence O'Toole Church and my parents. My parents named me Gerilyn Elain. When they took me to be baptized, Monsignor told them the names were not Catholic and he changed my name to Geraldine Helen. You can surely guess what happened especially since my dad was Irish and stubborn. I was nicknamed Gerrie for the rest of my life.

School was another dilemma. I started at public elementary school not far from where we lived. Part way through third grade I took myself down over many hills to St. Lawrence School where I stood on tiptoe to ask if I could go to school there. My older brother and sister went to school there. The principal must have talked to my mother and I had a wonderful Dominican Sister for fourth grade.

Later my family moved to Shadyside and I and my sister Ruth Ann went to Sacred Heart Elementary and High School. That is where I met Sister Mary Donald, our principal. A small group of girls began going over to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and helping out there in many ways. I thought I would join that community. When I asked my mother, the answer was "no," for many reasons including that the novitiate would be in France.

One evening, I said to my mother: "I'll bet you that if I wanted to go to the Charities you would let me go." Her answer was a definite "yes." Knowing that I would be a Sister of Charity I was quite at peace finishing out my high school years at Sacred Heart. Some times were hard. There was a girl in my class who was a bully. Imagine my surprise years later when as a nurse that girl was assigned to me as one of my patients. When it was said and done, she apologized for how she treated me in high school. God always turns things around and helps us, especially me.

So to finish the story: How did my name get to be Judith Marie? My brother Frank and his wife Betty had three sons and then finally a girl named Karen Marie. My niece Judy, my sister Carol's daughter, finally had a little girl named Judith Michelle. I entered the congregation in 1961 and when it was time for novitiate, we were asked to suggest our names in the community. I chose Judith and Marie from the names of my siblings' children. Naturally, at home I am still called Gerrie. And here in my wonderful community, I am usually known as Judy.



For ministry in our community I was first a teacher. There were many good experiences and some very hilarious times with the children I taught. Teaching skills also helped me when I became a nurse. I truly wish that my health was better so that I could continue longer working as a nurse. Yet, I dearly love God and accept what He gives me. In these last couple of years with medical concerns I really try to be kind and thoughtful to all the sisters and staff here at Caritas Christi. In these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as Sister Judith Marie, I have had a very wonderful and joy filled life.



안녕하세요! 저는 주디스 마리 맥케나Judith Marie McKenna 수녀입니다. 1963년에 수도복 착복을 하면서 받은 이름이에요. 77년 전에 성 로렌스 오톨St. Lawrence O'Toole 성당에서 캠벨Campbell 몬시놀과 저희 부모님 사이에 작은 다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름을 제럴린 일레인Gerilyn Elaine으로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캠벨 몬시놀은 저희 부모님에게 제 이름이 가톨릭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랄딘 헬렌Geraldine Helen으로 바꾸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일랜드인에 고집도 세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결국, 저는 평생 제리Gerrie 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공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많은 언덕 넘어 멀리 있는 성 로렌스St. Lawrence 학교에 갔습니다. 까치발을 딛고 서서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희 오빠와 언니는 거기서 학교에 다녔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고 결국 4학년 때 훌륭한 도미니코회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가족이 셰디사이드Shadyside로 이사를 해서 저의 자매 루스 앤Ruth Ann과 저는 성심Sacred Heart 초등학교와 성심Sacred Heart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메리 도날드Mary Donald 교장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여학생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수녀회에 입회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수련소가 프랑스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제가 사랑의 수녀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는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분명하게 "그럼"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사랑의 수녀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평화롭게 성심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저를 괴롭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제 환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특별히 저를 도와주시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주디스 마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마쳐 보겠습니다. 저희 오빠 프랭크 Frank와 새언니 베티 Betty는 세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캐런 마리Karen Marie예요. 그리고 저의 언니 캐롤의 딸인 제 조카 주디Judy에게도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주디스 미셸Judith Michelle이고요. 저는 1961년에 수도회에 입회했고 수련기가 될 때 수도명을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 형제의 자녀들 이름에서 주디스Judith와 마리Marie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제리라고 부르지요. 공동체에서는 보통 주디Judy라고 하고요.



제 사도직으로는 처음에는 교사였습니다. 가르친 학생들과 아주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좋은 경험도 많이 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법은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건강이 다시 나아져서 간호사로 계속 더 오래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지난 몇 년 동안 이곳 까리타스 크리스티의 모든 수녀님들과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사려깊게 대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사랑의 수녀, 주디 마리 수녀로서 멋지고 기쁨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